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기술주 숨 고르기..미국증시 약보합 마감

- 미국증시 주요지수 약보합: 다우 -0.03%, 나스닥 -0.66%
-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인플레이션 위험 완화”
- 미국 6월 제조업 확장세..속도는 둔화

Summary

미국증시 하반기 첫 거래 ‘약보합’ 마감

미국증시는 7월 1일(현지시각) 일제히 약보합권에 하반기 첫 거래를 마칩.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속도가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확장 국면에 머물러 있음을 이날 발표된 지표를 통해 확인했고, 신임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에 대한 언급은 최근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다소 덜었음. 다만 2분기 상승률이 돋보였던, 지수 주도력이 큰 반도체주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의 영향으로 주요 지수는 모두 소폭 약세권에 마감함.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0.003% 하락한 52,305.24에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는 0.66% 하락한 26,040.03에 거래를 마칩. S&P500 지수는 0.22% 하락한 7,483.23에 마감했고 나스닥 100 지수는 1.54% 하락했음.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지수는 0.39% 하락. 시카고 옵션 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 VIX는 0.85% 상승한 16.59에 마감.

(다우지수 -0.03%/ 나스닥 -0.66%/ S&P500 -0.22%/ 러셀2000 -0.39%)

시장 전반적으로 지수는 하락했지만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많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특정 대형주에서의 쓸림이 완화되며 시장 전반으로 자금이 확산되는 모습은 긍정적.

워시 “AI 혁명 아직 초기 단계..인플레 영향 지켜봐야”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이날 유럽중앙은행(ECB) 주최로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중앙은행 포럼에 패널로 참석. 워시 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4주 동안 기대 인플레가 낮아졌으며 실제 인플레이션 위험도 낮아졌다고 진단. 최근 국제유가가 빠른 속도로 하락해 인플레 전망이 낮아지고 있음을 시사. 다만 그는 “주변을 돌아보면 여전히 물가가 너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함. 또 2%를 웃도는 인플레는 중앙은행의 목표가 아니라고 말해 물가 부담이 덜어지고 있지만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담아놓지는 않겠다는,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 전망과 관련 다소 엇갈린 메시지들을 던짐. 다만 물가가 너무 높다는 자신의 발언이 이번달 FOMC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포워드 가이드스’를 폐지하겠다는 자신의 방침을 깨지 않을 것이라며 답변을 거부함.

이날 워시 의장의 발언 중에서는 AI의 영향에 대한 내용도 눈길을 끌었는데, 그는 AI의 급성장은 정책 운영과 경제 전반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그러나 이 혁명은 현재 매우 초입에 있다고 진단함. AI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오히려 일자리는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반박함.

미국 6월 제조업 PMI ‘확장’, 그러나 ‘둔화’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이 집계한 미국의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3.3를 기록해 6개월 연속 50을 상회하며 확장 국면에 머물렀음. 다만 전달 수치이자 시장 예상치인 54.0에는 미치지 못해 확장의 속도는 다소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 세부적으로는 생산 지수가 5월 대비 2.1포인트 하락했고, 신규 주문 지수도 0.8포인트 하락. 고용지수는 1.1포인트 높아졌지만 49.7을 기록해 여전히 위축 국면에 머물렀으며 가격 지수는 73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렀지만 전달 82.1에 비해서는 9.1포인트 급락함.

S&P글로벌이 집계한 6월 제조업 PMI도 공개됐는데 시장 예상 55.7을 하회하는 53.9를 기록해 역시 확장 국면에 머물렀으나 속도는 다소 완화됐음을 나타냄. S&P글로벌은 특히 기업들이 비용 상승을 상쇄하기 위해 고용을 축소한 점이 수치 둔화의 원인이었다고 설명.

6월 민간고용 다소 위축

이를 반영하듯 이날 공개된 ADP 전미 고용보고서는 지난달 미국의 민간 고용이 전달 대비 9만 8천명 증가에 그쳤다고 밝힘. 이는 직전달의 12만 2천명과 로이터 집계 전문가 예상치 11만 8천명 증가를 모두 하회하는 것.

지난해 둔화 국면을 거친 미국의 노동 시장은 최근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기업들의 해고 계획 감소와 함께 신규 채용 계획도 다소 위축되고 있어 구직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다소 악화하는 흐름. 앞서 콘퍼런스보드가 집계한 소비자 신뢰지수 세부항목 중 6월 구직에의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5년반만에 최고를 기록했음.

지정학적 우려는 일단 완화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일단 완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D. 뱅스 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비핵화에 대한 논의도 진정되고 있다고 밝힘. 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량은 아직 전쟁 이전 수준 회복까지 갈 길이 멀고,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에 대해서도 미국은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여기에 이스라엘이 여전히 레바논 남부에서의 군대 철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레바논 남부 나바티에 지역에 대한 공습을 진행하기도 함. 이에 중동 지역을 둘러싼 분위기는 여차하면 다시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며 이는 시장 내 일시적인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특징종목

하반기 첫날, 다시 반도체 차익실현

2분기 주가가 세 배 이상 급등했던 샌디스크(-10.62%)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10.57%)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주 전반이 하락. HBM을 핵심 전략 하드웨어로 하는 엔비디아(-1.25%) 가속기에 HBM을 배제한 ‘고대역폭 컴퓨트(HBC) 중심의 AI 데이터센터 제품군 로드맵으로 도전장을 내민 쉐일(-1.55%)의 약세폭이 그나마 제한적이었고 AMD(-6.89%), 인텔(-9.03%), 마벨 테크놀로지(-8.67%), 브로드컴(-2.23%),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2.75%), 애널로그 디바이시스(-2.06%),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9.97%), 램 리서치(-9.71%), KLA(-11.77%), 샌디스크(-10.62%), 웨스턴 디지털(-6.32%), 시게이트 테크놀로지(-5.16%) 등 메모리/스토리지/장비 등 전 밸류체인 내 종목들이 고르게 하락했음. 특히 전일까지 신고가를 경신했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9.79%), KLA(-11.77%) 등의 장비주 낙폭이 10% 내외로 더 부진했음.

한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제너럴 모터스(-2.02%)와 장기 메모리 공급 계약을 체결해 AI 기반 차량 플랫폼 협력을 확대함.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6.27% 하락했고 SMH(-5.40%), SOXX(-6.41%), SOXQ(-6.24%), DRAM(-10.82%) 등의 대표 ETF들도 전일의 상승을 뒤로 하고 일제히 낙폭을 확대함. 전일 신규 상장해 3%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친 메모리 반도체 신규 ETF DISK(-10.28%)도 큰 폭 하락. DISK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이노디스크 등의 메모리/스토리지 주요 기업들을 편입하고 있음.

한편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국 기술주와 반도체 업종의 버블 위험이 닷컴 버블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경고해 차익 매물 출회를 자극함.

빅테크: 메타의 날

빅테크는 엔비디아(-1.25%)와 브로드컴(-2.23%) 등 반도체주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상승. 특히 메타 플랫폼스(+8.81%)의 급등세가 눈에 띄었는데 메타는 이날 AI 컴퓨팅 파워와 모델에 대한 접근을 판매하는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 이른바 ‘Meta Compute’를 추진하고 있다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있었음. 메타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은 남은 컴퓨팅 파워를 일부 고객에게 팔아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코어워브(-13.92%), 어플라이드 디지털(-4.77%), 테라울프(-4.53%), IREN(-5.27%), 네비우스(-17.01%) 등의 AI 인프라 기업에 수익성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로 반영됨. 다만 로젠블랫은 AI 인프라 투자 규모가 장기적으로 성장한다는 전제 하에 코어워브의 하락은 매수의 기회라고 평가하기도.

지난 6월 한 달 AI 설비투자에 대한 부담을 반영하며 18.1% 하락한 마이크로소프트(+3.02%)도 이날은 상승.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르면 다음 주 전체 인력의 2.5% 미만을 줄이는 감원을 발표할 수 있다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보도 이후 비용 절감과 AI 인프라 투자에의 자원 집중에 대한 기대로 강세.

테슬라(+1.12%)는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등 유럽 주요 지역에서 판매 회복세를 확인하며 2분기 인도량 증가에 대한 기대로 상승.

애플(+1.74%)은 중국 시장 판매 제품에 사용할 메모리 칩 확보를 위해 중국 업체들과 협의 중이며 해당 사안을 미국 정부와도 논의하고 있다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전해져 지난 주말 불거진 CXMT 등 중국산 메모리 확보를 위한 로비 등의 움직임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임. 한편 2027년 봄 출시를 예정으로 아이패드 프로 4개 모델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맥북 프로의 경우 14인치 보급형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음. 또 첫 M7 프로세서를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도 블룸버그를 통해 전해짐.

소프트웨어: '과장된 공포' 지적에 반등

반도체주 약세와 함께 소프트웨어주의 반등도 특징적임. 특히 서비스나우(+6.57%)와 체크포인트 테크놀로지(+2.18%), 세일스포스(+4.19%)에 대해서는 구겐하임이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한다고 밝힘. 구겐하임은 AI의 발전이 소프트웨어 업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장 내 우려는 '과도한 공포'라고 지적하며 현재가 대비 20~40% 높은 수준의 목표가를 제시함.

과도한 부채를 통한 투자에 대한 부담으로 고점 대비 주가가 55% 하락한 오라클(-2.76%)은 이날까지 무려 8거래일 연속 하락. 다만 팔란티어(+7.76%)가 오픈AI와 엔트로픽 등의 폐쇄형 인공지능 기업들을 저격하는 한편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고 구축하고 있는 소비린 개방형 모델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키며 강하게 상승했고 이외 팰로앨토 네트워크(+3.23%), 클라우드 스트라이크(+1.26%), 포티넷(+3.49%), 등의 사이버 보안 종목들도 이날은 대체로 상승권에 머물렀음.

이외 특징주

헬스케어는 전일과 반대로 제약사가 약세, 이외 의료 보험, 진단, 의료기기와 장비, 바이오 테크 관련주는 대체로 상승. 그 중에서도 휴마나(+3.07%)와 모더나(+3.53%)가 신고가를 경신함.

서터스톡(-29.03%)은 게이이미지와(-10.47%)의 합병이 영국 경쟁 당국의 요구로 종결되자 급락.

알코아(-8.94%)는 회사가 광산, 금속 업체 사우스32(런던증시, +12.83%)의 보크사이트와 알루미늄, 알루미늄 자산을 총 41억 달러에 인수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하락.

크로거(+1.28%)는 식료품, 약국 체인인 자이언트 이글을 16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소폭 상승했고, 식품회사 중에서는 제너럴 밀스(+8.53%)도 실적 호조와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하며 강세.

로빈훅 마케츠(+8.35%)는 캐나다 서비스를 시작하고 싱가포르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등 해

외 확장을 가속화한다는 소식 이후 강세.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달러 가치 이틀 연속 상승

미국 달러 가치는 2거래일 연속 상승. 인플레이션 위험이 낮아졌다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발언, 그리고 ISM 제조업 PMI에서 확인한 가격 지수의 급락 등을 반영해 오름폭을 줄였지만 여전히 상승권에 머무른 국채금리와 함께 강세를 유지함.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DXY)는 0.23% 상승한 101.415를 기록.

전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거래에서 장중 1,554.90원에 마감한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551.20원으로 3.70원 하락함. NDF 달러/원 환율은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0.85원)을 감안하면 전일 증가 대비 3.25원 하락한 1,550.80원에 마감.

국채금리 상승

미국 국채 금리는 전일에 이어 이날도 장기물을 중심으로 상승.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 완화 발언과 ISM 제조업 PMI에서의 가격 지수 급락이 국채 가격 상승폭을 제한했지만 한편 여전히 절대적으로 높은 물가 수준과 연준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뚜렷한 언급을 거부한 워시 의장의 태도는 금리 인상 전망을 한 칸에 남겨둬 국채금리는 상승권에 머무름.

2년물 국채 금리는 0.2bp 상승한 4.1744%를 기록했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1.4bp 상승한 4.4791%를 기록. 전일 4.9%를 상회한 30년물 국채 금리는 1.9bp 상승한 4.9703%를 기록해 이틀째 4.9%대에 머무름.

시카고상품거래소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이날 연준이 오는 12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16% 내외 수준으로 반영했으며, 연내 한 번 금리 인상 가능성은 39% 수준으로, 두 번 인상은 32%수준으로 반영했음. 세 번 인상 가능성도 11%수준으로 반영함.

국제유가 이틀째 하락..전쟁 이후 최저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이틀 연속 하락세를 기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보면 이란의 비핵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란에서도 외무부 차관을 통해 필요한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실무 그룹 단에서의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해 기대를 높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32% 하락한 배럴당 68.58달러에 마감, 이란 전쟁 발발 하루 전인 2월 27일 이후 최저를 기록. 브렌트유 9월물은 1.89% 하락한 배럴당 71.57달러에 마감해 역시 2월 26일 이후 최저를 기록.

한편 미 에너지 정보청(EIA)는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직전주에 비해 377만 5천 배럴

줄어들어 시장 예상치보다 덜 줄었다고 밝힘. 원유 재고는 현재 10주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음. 주간 휘발유 재고 역시 시장 예상보다 더 큰 폭 감소.

금가격은 워시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 관련 발언으로 긴축에 대한 우려를 낮추며 상승함. 시카고 파생상품거래그룹(CME) 산하 금속선물거래소 COMEX에서 8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 대비 1.09% 상승한 트로이온스당 4,082.4달러를 기록. 장 중 3,973달러까지 하락하기도 했지만 4천달러대 지지력을 재확인하며 반등. 9월 인도분 은 선물 가격은 1%가량 상승해 온스당 60.5달러 내외를 기록.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